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카알튼의 '플라스틱 깃털 배드민턴 공' 발명

불편한 것을 좀더 편리하게, 값비싼 것을 좀더 싸게 만드는 것은 발명의 기본. 좋은 발명이란 이전의 상품이나 방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형태로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값이 비싸 대중화되지 못한 상품을 값싸게 만들어 대중화시킨 발명은 수작(秀作)중의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카알튼'의 '플라스틱 깃털 배드민턴 공'은 이러한 발명의 원리를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발명가는 영국 카알튼 스포츠 용품회사의장이었던 카알튼.

지금은 마당이건 골목이건 공터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 경기이지만 70여년 전만해도 사정이 달랐다.

배드민턴은 지금처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던 말이다. 이유인즉슨 간단했다. 배드민턴 공의 깃털이 새의 깃털로 사용되어 그 값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었고, 이에따라 보통사람들이 그 공을 사서 경기를 즐긴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배드민턴 공을 좀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스포츠광인 카알튼은 벌써 몇년째 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방법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틈만나면 그 방법을 찾기위해 끙끙거리며

죄없는 머리털만 쥐어뜯곤 했다.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을 펼쳐든 카알튼은 문제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플라스틱 상품의 등장으로 값싼 생활필수품시대가 열렸다'는 기사를 발견한 것이 계기.

"맞아.. 바로 이것이다. 새의 깃털대신 플라스틱 깃털로 배드민턴 공을 만드는 거다."

카알튼은 서둘러 특허출원을 마치고 대량생산을 서둘렀다.

이미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각종 기계가 나와 있었으므로 다음 단계는 시간문제였다.

"값싼 배드민턴 공이 나왔데..."

한달이 채 못되어 영국 전역에 퍼진 소문은 새로 발명된 플라스틱 깃털 배드민턴 공의 생산을 독촉했다. 밀려드는 주문은 항상 생산시설 증설까지도 앞서갔다. 실로 폭발적인 인기였다.

카알튼이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황제'로 부상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 실화 뒤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실화가 있다. 이름하여 '6백만엔짜리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바로 그것.

일본 스포츠용품 대메이커였던 '하네타치공업'이 플라스틱 깃털을 생산하다가 카알튼에게 발견된 것이다.

사실은 하네타치가 카알튼보다 앞서 플라스틱 깃털을 발명했으나 특허출원을 안해 일어난 촌극이었다. 결국 화해로 매듭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발명은 그것 못지않게 서둘러 출원해

“

좋은 발명이란 이전의 상품이나 방법이 해결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형태로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다. 불편한 것은 좀더 편리하  
게 값비싼 것은 좀더 싸게 만들어 보자.

”

야 한다는 교훈이 되는 사건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 ‘미야크스의 ‘홀라후프’, ‘요우요우’ 발명

세심한 관찰은 발명을 낳는다. 발명에서 관  
찰처럼 중요한 것도 흔치않다.

전세계 어린이들을 열광시켰던 홀라후프와  
요우요우도 관찰에서 탄생되었다.

이 두 놀이기구의 발명가인 미국의 루이 마  
야크스는 장난감의 황제로 불리울 정도로 대성  
공.

취미가 여행인 마야크스는 틈만 나면 국내의  
여행을 하곤 했다.

1960년대 말 어느 여름, 마야크스는 친구들  
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로 여행을 떠났다. 문명  
이 도입되지 않은 토인 원주민들이 살고있는  
곳이었다.

여행경험이 풍부하고, 현지 안내자의 도움까  
지 있었으나 이번 여행은 두려움이 앞섰다. 흑  
인 원주민들의 난폭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  
문이다.

토인 원주민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난장판 같  
았다. 무슨 말을 주고 받는지 싸우는 것 같아  
보였고, 놀이 또한 문명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마야크스는 어른들의 원색적이고 난폭한 놀  
이보다는 어린이들의 익살스러운 놀이가 한결  
흥미로웠다.

어린이들은 나무덩굴로 만든 덩굴테를 허리  
에 끼고 빙빙 돌리기도 하고, 돌을 갈아 만든  
원판을 실같은 나무껍질에 꿰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여간 재미있어 보이는군. 저 정도 재미있는  
놀이면 문명인들도 좋아할게 틀림없어.”

마야크스는 두가지 놀이를 문명인들에게 전  
파하기로 결심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마야크스는 토  
인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던 원시 놀이기구를  
닮은 문명 놀이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구조가 간단하여 재료인 나무덩굴과 돌을 플  
라스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다.

홀라후프는 플라스틱으로 둥근 테를 만든 것  
이 전부.

또 요우요우는 두개의 원판 축에 실을 매어  
놓은 것이 전부.

즉시 실용신안 출원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  
갔다.

폭발적인 인기였다. 1년이 채 못되어 미국  
전역에 홀라후프와 요우요우의 붐이 일어났다.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 만들기도 간단하  
여 수익 또한 높았다.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알려지자 수입상들이  
몰려 들었다.

마야크스는 수출보다는 각국에 직원을 파견  
하여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도록 했다.

세계 언론은 장난감 놀이기구의 혁명이라고  
극찬했다. 마야크스가 얼마나 큰돈을 벌었는지  
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는 황금의자에 앉  
을 수 있었다.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홀라후  
프와 요우요우도 이것이 원조였다.

〈王然中 記〉